

대형마트 이곳저곳 훑고 다닌 백신 거부자



▲ 조디 메슈크(원 안) 인스타그램. 사진=instagram

코로나19가 별문제가 아니라며 대형 마트에서 손잡이 등의 기물을 자신의 혀로 훑고 다니는 기행을 선보인 백신 접종 거부자가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살고 있는 조디 메슈크라는 이름의 여성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로워들에게 문제의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 속의 메슈크는 마트에서 쇼핑 카트와 채소를 포장하는 비닐봉지 그리고 냉장고 문손잡이 등 여러 기물을 혀로 훑는 모습을 보였다.

메슈크는 문제의 영상에서 “세균은 면역체계를 강화한다. 세균에 노출되면 천식이나 알레르기에 관한 방어력이 커진다.”면서 “미생물은 소화를 돕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문제의 영상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그녀가 이를 직접 삭제했는지, 아니면 인스타그램 측에서 삭제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마트에서 상품 등 기물을 혀로 훑은 사람은 메슈크가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이 한창일 때 캘리포니아주의 한 여성은 쇼핑 카트를 혀로 훑았다가 체포됐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한 여성은 샌드위치 매장에서 자신의 손을 훑은 뒤 식품 등을 만진 혐의로 체포됐다. 펜실베이니아주 한 여성은 마트에서 일부러 기침을 해 3만5,000달러 상당의 식품을 폐기하게 했다.

이런 행위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3월 캘리포니아주의 한 남성은 공중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혀로 훑는 모습을 SNS에 공개한 지 며칠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45년 만에 나타나

4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칠순 노인이 되어 나타났다.

1976년 10월 12일, 인도 뭍바이에서 첸나이로 향하던 인도항공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객 95명이 전원 사망했다. 파티마 비비(91) 할머니도 이 사고로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사지드 탕갈(70)이 살아 돌아왔다.

사연은 이러했다. 문화 사업가였던 탕갈은 여배우라니 찬드라 일행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공연을 마치고 귀국했다. 애초 일행과 함께 첸나이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행사 조직위원회와의 충돌로 티켓을 취소하고 혼자 뭍바이에 남아 남은 일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후, 여객기 추락 소식을 들었다.

탕갈은 “동료들은 모두 죽었고 실패자가 된 것 같았다.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그런데 모두 내가 죽은 줄 알더라. 나는 뭍바이에 주저앉았다. 성공해 돌아갈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거리를 떠돌며 방황하던 그는 결국 비정부가



▲ 70세의 사지드 탕갈(왼쪽), 91세의 노모가 백발노인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안고 오열하고있다. 사진=Hindustan Times

구 보호소에 들어가 생활했고 최근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상담가 한 명에게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서로의 생사를 확인한 모자는 지난달 31일 케랄라주 콜람 고향 집에서 재회했다.

사고 후 탕갈의 가족은 승객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하지 못했다. 탕갈이 항공권을 취소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었던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탕갈이 나타나지 않자 그가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아빠가 사망한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

지난달 19일, 텍사스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가 태어났다. 이 병원은 불과 두 달 전 아이의 아버지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곳이었다.

6일 CNN은 아버지가 숨진 병원에서 태어난 아들의 기막힌 사연을 전했다.

마리아(30)는 지난 5월 4일 남편 제이슨(36)을 먼저 떠나보냈다. 코로나19로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던 남편은 투병 3개월 만에 숨을 거뒀다. 그때 마리아 배 속에는 둘째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마리아는 남편을 떠나보낸 병원에서 둘째아들을 출산했다.

마리아는 “익숙한 의료진, 의료기기를 보며 남편의 마지막 순간이 생각났다.”면서 “둘째아들을 보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난 남편과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 아



▲ 아들 제이슨과 아버지 제이슨. 사진= thedenverchannel.com



들 얼굴이 겹쳐 가슴이 미어졌다.”고 전했다. 마리아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 아들에게 제이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녀는 무사히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데에 백신의 힘이 컸다고 믿는다. 마리아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백신을 접종했다. 마리아는 “어떤 임신부든 가장 원

하는 게 자녀 보호다. 그리고 백신은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백신을 맞았다면 내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을 권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임산부 예방접종 권고안’을 통해 “기저질환이 있는 임산부는 의료진과 상의 후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예약 후 방문 상담 가능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PWC 근무

PREMIER
TAX
GROUP

(714)530-0030
4128 W.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3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